東亞日報

定價 購讀料 金二十五圓

社說 心理的 三八線
兩代表의 式辭를 讀함

一

지난 二十日 서울 德壽宮 一室에서 美蘇共同委員會가 開催되어 지금 進行中이다. 朝鮮의 現在難局을 收拾하고, 朝鮮의 將來獨立을 保障하기에 適切한 方式을 案出하려는 會合인 만큼, 自家의 運命에 至大한 關聯을 가진 이 會合에 全朝鮮의 耳目이 凝集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同時에 歐亞를 通한 處々에 美蘇의 折衝과 妥結을 要할 問題가 山積한 이때에 「朝鮮」을 課題로 한 이 美蘇의 會談은 兩國의 和不和를 決定하는 『열쇠』인지라, 全世界의 視聽도 저절로 이에 集中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러하야 今般會談은 朝鮮及世界的 環視下에 登場된 世界史的 意義를 가진 歷史的 會合의 「第一步」인 것이다.

二

이같이 重大한 意義와 使命을 짊어진 會合인지라, 開會에 臨하는 兩國代表의 劈頭人事는 會談의 結果를 豫卜할 수 있는 가장 重要한 文獻이매 一字一劃도 省略함이 없이 그 全文을 發表하였든 것이다. 讀者는 읽었으리라. 文字를 아는 朝鮮同胞는 다 같이 一心으로 읽었으리라. 自主獨立의 一點에 凝結되고, 國難打開의 一路로 直進하려는 우리의 老少와 우리의 男女는 再三再四 아니 읽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읽고 난 뒤의 「朝鮮의 가슴」은 무엇을 느끼였는가? 「朝鮮의 머리」들은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兩國代表의 式辭에 對한 우리의 見解와 所感은 閑暇를 달리하야 具體的으로 開陳할 機會가 있으려니와, 一句로 斷言하면, 그저 「不和를 豫感」할 뿐이다. 兩代表의 式辭는 朝鮮民衆을 相對로 하는 同時에 各自의 相對者를 相對하였으리라. 그리하야 兩代表는 握手도 하였고 歡談도 하였으리라. 그러나 式辭의 文面을 通하야 推斷된 兩者의 意圖와 心境間에는 이미 障壁이 되여 있는 地理的 三八線에 못하지 않은 心理的 三八線의 一線이 그어져 있음이 看取되였다. 이로써 이 會談이 無難하게 進行될 可能性이 稀薄하다는 不調의 暗示를 받았다 할 것이다. 이것이 速斷일지 모른다. 그러나 兩個의 式辭를 對照하면서 再讀할 수록 이 같은 速斷을 나리지 않을 수 없음을 恨하고 슬퍼하는 바이다.

三

우리를 抑壓하였든 日本의 虐政을 驅逐한 美蘇의 恩功은 原來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道義的으로나 功利的으로나 兩國에 對하야 親善을 다할 義務 [illegible] 느끼는 바이다. 그러나 感情의 分岐와 親反의 轉變은 반듯이 恒久的이 아니며, 一律的이 아니며, 一方的이 아니다. 그럴 수 없음은 獨蘇日蘇의 關係, 英伊美日의 關係等々 許多한 國際的 葛藤이 이미 證明한 바이다. 恒常 受動的 處地에 있는 우리가 執柄者의 優位에 있는 美蘇兩國에 對하야 그 言動을 注視하게 됨은 이러한 까닭이다.

그런데 友好的 協商을 前提로 하는 會談의 式辭로서 美國側은 어떠하였으며 蘇聯側은 果然 어떠하였든가? 率直히 말하건대 蘇聯側은 會談의 「人事말」로는 너무도 激한 바 있었다. 非妥協的 精神이요 非友好的 言辭라는 印象을 주었다. 지나친 一方的 宣言이며 [illegible]을 찾는 [illegible] 하였다. 友誼的이 아니라 君臨的이며, 援助的 風度가 아니라 强壓的 態度였음을 看過할 수가 없다. 그 立論에 있어서, 그 用語에 있어서, 治下의 隣邦에 號令하는 威力의 示威를 彷彿케 하는 바 있으니, 우리의 援助者인 大國蘇聯의 品格을 미드려 하든 우리는 여기에 이르러 一抹의 幻滅을 느끼는 바이다. 言辭로 對接하야 우리는 言辭를 삼가려 한다. 隱忍自重하기를 自勉하리라. 그러나 百步를 讓步하야 아무리 善意로 解釋하여도 一國을 代表한 大國使臣의 言辭로는 그 國家의 地位와 聲望과 威信을 爲하야 遺憾이 아닐 수 없음을 指摘하야 꺼리지 않는다.

四

지난번 豫備會談이 時間의 空費였든 것은 世上이 다 아는 바이다. 따라서 그러케 될 수 밖에 없든 理由와 經過等 裏面事情도 별리 알려진 터이매, 그 是非와 曲直의 如何를 更論할 必要가 없다. 事情이 이러하였든지라, 이번의 正式會談에 對하여서도 크나큰 期待를 가지기 어려운 疑惑을 느낀 것도 自然이다. 그러나 弱者의 處地요, 또 被動的 境遇라, 그래도 一樓의 餘望을 버리지 않고 美蘇兩當局의 友好的인 協商으로써 우리의 明日을 爲한 明朗한 約束이 있어지기를 待望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結局 우리의 一方的 希望에 끗칠 兆朕이 보힌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會談에 臨하는 美蘇代表의 「人事」 自體가 그같이도 距離가 甚한 데 이르러서는 今後의 進行과 結果는 不問可知라 할 것이다. 슬픈 일이오 不幸한 일이나, 嚴然하고도 冷酷한 現實일 바에는 그대로 直視할 박게 없다. 奇蹟的인 一大轉換도 全然 없을 바 아니나, 一方的인 希望的 觀察은 原來 禁物이다. 우리는 다못 닥처오는 事態를 正態대로 把握함으로써 새로운 打開의 方途를 準備할 뿐이겠다.

五

우리는 孤立無援이든 已未當年에도 「三一」을 推進하든 氣魄이 있었다. 「물어도 준치오 늙어도 生推」인 傳統과 矜持를 가졌다. 人種을 超越한 人類的 正義의 協調가 있을 것이며, 安全을 保障하는 國際的 機構와 守護가 있을 것이며, 良心으로 울어나오는 世界的 輿論의 激勵가 있음을 미더 疑心치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事態에나, 바르고, 올코 굿세고, 줄기차게 當處하는 準備만 있으면 그만이다. 『事必歸正』! 王道의 勝利는 究竟 여기에 있는 것이다. 三千萬同胞여, 밀리고 밀리되 最後의 瞬間에서 一大反發을 이르킨 蘇聯의 英雄的 底力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自認하고, 우로운 決意와 새로운 準備로써 自助自勉, 自負自持하라. 自主自律의 一路로 나가자.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活潑化한 政黨合同
全面的統一工作으로 進展

過渡政權樹立에 對備하기 위하여 民主々義各政黨의 積極的인 動向은 民主議院의 成立을 보게되였는데 그 후 將次열일 總選擧를 豫想하고 또다시 民主陣營은 活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卽 國民黨에서는 韓國獨立黨과 無條件合同을 하였거니와 韓民黨에서도 이와 呼應하여 交涉委員 金性洙 金東元 張德秀 諸氏가 各方面으로 折衝한 結果 一步飛躍하여 全面的 統一工作으로 局面이 轉換되였다. 또 韓國獨立黨의 中央執行委員長 金九氏도 이에 贊同하였으나 問題는 海外에서 三十星霜苦節을 지켜온 擴大革命勢力이라 할 수 있는 韓國獨立黨의 名稱과 政綱政策만은 고칠 수 없다는 一部黨員에 統一을 爲하여 無條件合同하자는 提議와 朝鮮의 政治現實에 符合한 黨名黨是를 갖자는 意見에 多少의 齟齬가 있어 各黨代表 金九 趙琬九 金性洙 安在鴻 金麗植 五氏는 京橋洞臨政宿舍에서 鳩首會議로 長時間에 걸치었으나 아직 具體的인 成案을 얻지는 못하였다.

또 韓國獨立黨의 黨員인 李承晩博士는 還國以來 始終一貫 堅持하여오든 態度와 같이 어데까지나 個人의 資格으로 獨自的인 發言權을 가지고 對外的으로 獨立을 促成하는 意味에서 朝鮮의 完全獨立될 때까지는 政黨에 積極的인 關係를 갖지 않겠다 하며 金奎植博士는 海外에서 三十餘年을 이끌고 오든 朝鮮民族革命黨을 脫退한 後 不過月餘에 또다시 政黨出馬하는 것에 多少難色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결국 時間問題일 것 같다. 이로써 三領袖推戴法式은 變更하게 될 듯 推測되는데 이후 展開될 政情은 자못 注目되는 바이다.

自由賣買認許하라
軍政에 效果的方策없음은 遺憾
食糧救急策 韓民黨에서 强調

二十六日 正午十二時 韓民黨에서는 記者團定例會見에서 咸尙勳 宣傳部長이 如左한 談話를 發表하였다.

一、美蘇共同委員會는 莫斯科三相會議의 決定에 依하야 組織되고 朝鮮의 民主臨時政府樹立에 斡旋키 爲하야 努力할 것이다. 그럼으로 三相會議를 支持하는 것이 반듯이 信託統治를 贊成하는 것은 아니니 信託統治를 밟느냐 안 밟느냐는 臨時政府가 樹立된 後 그 政府와 美蘇乃至美蘇中英四國과 協議해서 決定할 것이다. 臨時政府樹立이 卽信託統治의 前提라고 誤解함은 잘못이다.

(二) 一部에서는 信託統治를 贊成하는 것이 民主々義요 反對하는 것이 反民主々義인 것처럼 宣傳하나 民主々義란 多大數의 國民이 무엇을 希望하는가에 依해서 決定될 것이다. 朝鮮이 卽時獨立을 希望하는가 信託統治를 希望하는가는 客臘以來의 信託反對의 示威行列及三一慶祝日의 市民의 動向을 보면 잘 理解할 것이다. 朝鮮서는 信託대신에 卽時獨立이 民主々義的 要求다.

三、朝鮮이 獨立되면 어느 나라에나 傀儡가 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하야 어느 나라에 對해서도 攻擊의 要塞又는 基地가 될 수 없는 同時에 割讓租借도 許할 수 없다.

(四)(略)

(五) 韓國獨立黨과 本黨과의 合同問題는 臨政還國當時 本黨에서 提議한 바요 李承晩, 金九 兩氏領首를 民族的指導者로서 推戴하자는 것은 本黨의 持論이다. 海外의 各民族主義政黨이 大同團結함은 當然한 일로서 方法이 進行될 것이다.

(六) 食糧問題는 實로 緊迫하야 一日이라도 遲滯할 수 없는 이때에 軍政廳에 效果的方策이 없음은 遺憾이다. 本黨은 卽時 自由搬入과 自由賣買를 主張하였거니와 自由販賣가 許諾되면 殺人的 食糧難은 解決될 것이다.

新民黨의 土地政策
十一項目의 內容을 聲明

新民黨에서는 朝鮮의 緊急한 土地政策에 對한 黨의 見解를 發表하였는데 全文十一項目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一、朝鮮의 耕地와 林野는 傳統的으로 封建的 國有制이였다. 그러나 日帝式法制下에 近世的 私有制로 改編되얏다.

二、民主政治와 民主經濟를 樹立하라면 從來의 私有土地制는 新國有制로 改編하는 同時에 原則的으로 小作制를 自耕制로 轉換함으로써 農民의 私有財産을 맨들 物的基礎로 하고 따라서 民族富强의 基礎를 構築해주어야 한다.

三、朝鮮土地問題는 日本人所有土地만 解決한다면 土地問題의 大部分이 解決되는 것으로, 速斷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나 絶對로 그러치 안타. 問題의 重點은 차라리 朝鮮人地主所有土地의 處分方法 如何에 農民의 運命이 달렸고 그것이 實로 民主經濟의 地盤이 될 것이다. 그것은 日人所有土地四十三萬町步는 總耕地面積 四百五十萬町步의 約一割에 不過하고 朝鮮人地主所有土地二百六十餘萬町步는 그 總耕地의 五割八分以上을 占領하고 있는 事實로 보아 分明하다.

四、其處分方法으로서 爲先 日本人所有土地處分을 私的賣買에 放置한다면 그 總價格이 實로 三十億圓을 超過할 것이며 그 結果는 自作農이라기보담도 恒久的 債務로 轉化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其處分權은 不遠에 樹立될 朝鮮新政府에 매껴두는 것이 適當한 措置로 생각된다.

五、十五萬六千餘名되는 大、中、小地主가 二百二十萬町步를 所有하고 있는대 萬一에 十町步以上의 地主만 가려본다면 四萬七千餘名에 不過한 大、中、地主의 所有土地百八萬町步에 對한 處理方法이 問題이다. 그러나 이것을 有償國有로 한다면 建國初의 新國家가 적어도 八十億圓以上의 國債를 負擔할 것이며 財政對策에 致命傷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無償沒收以外의 國有制는 地主를 反民主的 產業資本家로 轉化시킬 뿐이고 民主經濟確立에 對한 새로운 支障이 될 것을 言明한다.

六、從來의 自作地와 新自作地는 私的讓與及抵當의 禁止、土地配定의 更新、地價稅等에 關한 土地法을 制定할 것

七、新自作地의 報酬率과 其期間은 地稅 物價 家族數 文化及厚生施設 過去十年間의 平均生產額等의 條件을 參酌하야 新政府가 制定할 것

八、國有制를 採用한 後 自耕能力이 업는 土地所有者는 그 耕作權을 全擔하는 技術的 措置로써 生活、其他文化的 需要가 保障되여야 할 것이다.

九、一千六百萬町步를 算하는 全林野의 約六割이 私有林인데 이것을 國有로 하고 五萬三千餘町步의 墳墓地는 新政府의 墓制創定期까지 保留함이 可할 줄로 한다

一〇、干潟地開拓과 耕地開墾者에 對하야는 一定한 期間 特權的 利益을 保障할 것

十一、北朝鮮土地改革案은 原則的으로 贊同이 잇서서 技術的 措置方法에 잇서서 考慮를 要할 點이 잇다. 卽 國民經濟政策一般이 相互關聯性을 가진 것인즉 其施行時期와 耕作能力업는 土地所有者의 生活保障問題等이며 南朝鮮에서는 容認할 最限度 面積도 北朝鮮과는 좀 달리 考慮할 必要가 잇을 듯하다

蘇聯代表는 退場
安保에서 「이란」 問題로

【紐育 二十八日 UP發 朝鮮】 聯合國機構安全保障理事會 蘇聯代表는 二十七日 同理事會에서 「이란」 問題에 關한 討議를 四月十日까지 延期하지 않는 境遇에는 出席할 수 없다는 蘇聯最後通牒에도 不拘하고 九對二票로 右延期提案을 否決한 結果 議場으로부터 退場하였다

國際新聞(前大每) 朝鮮總局新設準備

日本居留中國人의 言論機關으로서 前大阪每日新聞社를 中華民國國際新聞으로 發行하고 있는데 同社에서는 朝鮮內의 中國人을 爲하야 朝鮮總局을 設定하기로 決定하고 朝鮮總局長에 康河鎭氏를 任命하였고 同代理에는 徐廷勳氏를 任命하야 徐氏以下四人이 入京하야 準備中이다

人事往來

▲禹德淳氏(安重根先生追悼會委員長)▲南相喆氏(同儀式部長)▲金洛泳氏(同總務部長)▲咸錫勳氏(同總務部員) 追悼會無事終了 人事次來社 ▲車相瓚氏(開闢社員) 二十四日 市內嘉會町 二〇二의 二番地自宅에서 別世 二十八日午前 十一時 發靷, 葬地는 彌阿里墓地 ▲崔在鎬氏(京城中央郵便局長) 新任人事次來社 ▲高案英氏(大韓新聞社主筆兼編輯局長) 新任人事次來社 ▲徐廷勳氏(中華民國國際新聞社朝鮮總局長代理)▲閔丙直氏(同編輯部長)▲朴源河氏(同業務部長) 新任人事次來社

社告

印刷事情에 依하야 二十四、二十五、二十六、二十七、二十八日附의 新聞發行은 不得已 中止하엿사오니 讀者諸位는 諒察하시기 바라나이다

三月二十八日

朝鮮日報社
漢城日報社
東亞日報社

휭설수설

▼어느 한 學校의 한두 學年이 아니요, 全學年이 盟休다. 이른 것이다면, 한갓 철모른 學生의 「輕擧」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 ▼어느 한 地方의 한 學校 두 學校뿐이 아니요 中等、專門의 全男女學生이 同盟으로 休學을 했다면, 이것은 社會의 重大問題가 아닐 수 없다. ▼平壤의 學生盟休는 어찌되었나? 一說엔 解決? 一說엔 繼續? 閉鎖된 三八障壁을 넘어오는 消息이라 兩說을 滿宿이요. ▼盟休의 原因은 무엇이엇든가? 그를 寸陰을 애껴가며 배움에 힘써야 할 朝鮮의 學生이 아닌가? 하로 이틀도 아니요 거진 한 달이 가차워오지 않은가? ▼純眞한 學生의 思想動向을 無視하고는 朝鮮의 前途를 明朗할 수 없다는 것을 爲政者는 알라! ▼北朝鮮의 實情을 把握키 爲하야 平壤을 訪問하는 손님이 있다 하거니와 그곳 政黨의 소리도 소리요, 그곳의 學生의 소리는 어떠한가? 試聽이 如何. 若何오?

中等敎員臨時養成科學生募集

一、學科名及人員 體育科(約七〇名) 生物科、數學科(各五〇名)
一、應募資格 (가)五年制中等學校卒業者 (나)四年制中等學校四年修了者 (다)二種訓導以上資格者 (라)右와 同等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認定한 者
一、提出書類 入學願書、履歷書、戶籍抄本、卒業證明書、所屬長의 受驗承諾書(現職敎員)
一、願書提出期限 一九四六年四月十七日(入學願書는 本校에서 交付함)
一、試驗科目 (가)學科 國語、英語及各志願學科 (나)身體檢查及口頭試問
一、試驗期日 一九四六年四月十九、二十日
一、試驗場所 本校
一、入學式 一九四六年四月二十七日
一、修業年限 一年
一、卒業後特典 中等學校敎員資格을 附與함
一、其他詳細한 것은 本校에 問議할 事

京城師範學校

移轉廣告

今般 弊社는 左記場所로 三月二十日부터 移轉하오니 江湖諸賢은 倍前愛護하여주심을 伏望하나이다

舊住所 漢城市鍾路區內資町七五番地
新住所 漢城市西大門區竹添町一丁目九〇番地(舊赤十字病院) 朝鮮鑛業振興會社別館

三國石炭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局③ 三四三一 三四五一 (代表)四五二一 二二番

建國記錄寫眞展
朝鮮工藝品展覽會
3月20日부터 4月8日까지 於七層畫廊

內案場賣
寫眞部 七層
花環賣場 四層
記念式具 四層
印章賣場 四層
電器器具修理部 二層
眼鏡部 二層

和信

謹告

今般 軍政廳指示에 依하야 弊社에서는 東大門區內에 잇는 日本人所有의 建物과 土地를 管理하게 되엿스며 八月十五日前後부터 受託管理하든 物件도 從前대로 弊社에서 管理하게 되엿슴니다. [illegible] 現地調査를 하야 新規貸借契約을 하기로 하엿스니 調査員의 提示하는 證明書를 確認하시고 調査에 協力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illegible]

三月二十三日
漢城市中區南大門通二丁目一三〇番地
朝鮮信託株式會社

外科 肛門病科 附屬皮膚、性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서울樂園町 電光一四五二

世界에 "불" 자즌 漢陽

낫에나 밤이나 비바람을무릅쓰고 꾸준히 국도서울의망대우에서 소방수들이 서울을지키고잇는 서울의거리는 세계어느도시보다 화재발생율이 마흔형편이다 그리하여 금후방화의 강화를도모하기로되여 오는西월부터 새로히 기구를개혁하여 서울수도소방부(首都消防部)를만들고 새구상아래 씩씩한활약을보게되엿다

四月부터 首都消防部新設
米國서最新消防車도輸入

국도소방의 강화하는 첫방책으로 종내경기도경찰부에속하여 지휘를밧고있든 서울시의 소방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서울시에 소방부를설치하고 세계의우수한기술을가진 미국식으로재훈련을 하기로되엿는데 이훈련은 방금서울소방서 파거二十년동안미국에서 소방관계에종사하여온 마군장표흠 지휘관에一루트중위(中尉)의 지도미레진행되고 잇스므로 금후 이소방진의활약은 만흔기대를갓게한다 그리고 가구개혁과아울러 자재확충을하기로되여 방금미국에 최신식소방용자동차二十대를 주문중인데 이것도근근 도착될것이다 이와 동지에일제(日帝)시대에 소방수(消防手)의 명칭도 소방사(消防士)라고 붓으며 이의대한게급명칭도 갈기로 되엿으며 그리고 일제당시에 비치한 경방단(警防團) 흑은관청, 회사용「까소린」소화퐁푸는 해방후 각처에 방치한것이 시내에만도五六백대나 방치되여있으므로 이것도 회수하여 유용하 사용을 계획중이라고한다 그리고 새로히 제정될 『휘장』『흉장』『견장』과 제복은 순전히 세계각국 소방수복장에서 장점을 채택하여 모방한것으로서 작업복도 전일경당시 작업복을 폐지하고새로히 고무로 만든복장을 사용하리라한다 【사진】은 (右)복장(中)모표(左)흉장

解放紀念植樹 四月一日에實施

서울시에서는 四월一일 전시민을 동원하야 해방기념식수(解放紀念植樹)를 실시하기로 되엿는데 이번기념식수를 기회로 서울시내에 압호로 록화(綠化)운동을 전개하리라는데 기렴식수를할곳은 다음각구에 난호어있다 △學校—市內外學校林△市廳—漢南町△東大門區—敦岩町△鍾路區—明倫町△中區—漢南町△西大門區—延禧町△麻浦區—倉前町△龍山區—孝昌公園 永登浦區—新吉町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巡廻講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서는 국민운동주지와 민족사상확립을위하야 卄七일하오二시부터 종로기독청년회관에서 오하영씨외수씨의 지국대강연회가잇고 계속하야지방순강대(巡講隊)를 아래와갓치파견하기로 되엿다 ▲濟州卄九日▲大田三十日▲金泉卅一日▲居昌四月一日▲加耶四月三日

가장正確한史記 李朝實錄
五箇年繼續으로影印刊行

햇볕과동진재·서고(書庫)속에서 잠자든 이조실록(李朝實錄)이 다시 광복의 찬회와함게 간행되엇다 이책은 이조태조(太祖)에서 제二십五대철종(哲宗)에 이르기까지 四백七十一권六개월동안의일을 一만七천六권으로 나눈실록—二만七천여 페지나되는 방대한이조의정사(正史)로가치가잇스며 또 그예날에는서고에만잠겨잇섯고 이지음은 너무방대하고 책이희위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저히 볼수 업는 것이엇다。 이에백남운(白南雲) 이병도(李丙燾) 씨등사화계의권위十一명이 편집위원이되어 시내북미창정(北米倉町) 정음사(正音社)에 이조실록간행회(李朝實錄刊行會)를 조직하여 축쇄영인보급판을 대량으로 간행하려는 것으로 정당한 민족사학구에 새로운 화제를 던지고잇다 간행위원은 다음과갈라

▲編輯委員 金允經、金台俊、白南雲、白樂濬、孫晉泰、李丙燾、李在郁、李重華、李秉岐、洪起文

▲刊行委員 崔暎海、洪以燮、韓吉洙、李泰永

새로나오는 이책은 태백산 사고본을의거하야 전질 一백六십二책으로 축쇄하야 四월에 첫재권을내고 이어五년간게속사업으로 간행하기로된것이다。

圖書館長 李在郁氏談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으로 국립도서관 관장인 이재욱(李在郁)씨는 다음과갈이 말한다 「이실록은 중국의 본을떠서 나라에 한임금이 없든만큼 그내용은 정확한것으로 역사연구에 기와 기록을 로대로 실록을 기우려 편찬한것은 사관(史官)들이실록찬수청(實錄撰修廳)에서 원본을 실록체(活字)로써 세부씨임금이 새때마다 인행하야 태백산(太白山)강화도정족산(鼎足山)무주(茂朱)적상산(赤裳山)五대산(五臺山)등 네곳사고(史庫)에 보존하여나려온것이다 그리고 사관의 기록은 곡필되지않고 광심적이며 정확한것으로 둘수없게 되었든만큼 그내용은 부정할것으로 역사연구상으로 가치가 크게 영인해내는것이 상당히 이런것을 대대로 완수되기를 바라지안는다」◎

同志의애끓는追念
卄六日安重根先生追悼會

도왜(屠倭)의선구 안중근(安重根)의사의영령을 위로하는「三十六주기추도회」는 二十六일오후두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엄숙히 집행하였다 추도회장에는 김구(金九)총리 김규식(金奎植)박사 조소앙(趙素昂)외교부장 홍진(洪震)비상국민회의장 김창숙(金昌淑) 김능권(金能權)제씨와 각정당대표 유가족대표등외열석과「뉴ー맨」공보국장 중화민국거류민대표 정원한(丁元翰)씨등이 참석한가운데 추도식을거행하였는데 정인보(鄭寅普)씨의 추념문 낭독 천주교합창단의 추념가합창이있은후 안의사의 영령에대한 二분간의 묵념(默念)이있었다 다음 래빈축사에드러가「뉴ー맨」공보국장으로부터「러ー취」군정장관의 고안을 찬양하는 열렬한축사와 의사의거사와 거룩한주검을 대목하고따라서유가족에 대한위문품증정이있었다

休刊中의 事報

信徒大會盛況
基督教受難報告

卄四日 三八이북에서 이러나고있는 교회수난사건에대한풍설은 어느때는 사실보다 크게 또어느때는 사실보다 적게 三八이남에 전하여져서 신도들은 물론이어니와 일반시민들도 크게분금히여기는 한편 크게 궁금히여기고있음으로 수난실정을 규명하는동시에 이에대한 대책을강구코저 서북교회수난실정보고신도대회는 각파신도八백여명 참석하에 二十四일오후二시부터 정동예배당에서 개최되었는데 一통대회는 회순에쪼차 실정보고서 낭독 실정상황설명 결의문낭독 결의문을 회의하여 결의문과같다

決議文

一、右記聯合四大國 聯合軍司令部 米蘇共同委員會 米蘇中英基督教에打電하야 世界正義에呼訴할것

二、在朝鮮蘇聯駐屯軍司令官에 左記條件의要求書를提出할것

(1)拘禁된敎職員及信徒全部를即時釋放할것 (2)强制占領한禮拜堂을回付(信川敎會)할것 (3)奪取한敎會器具를返還할것(城津敎會피아노 高原敎會風琴 椅子 席子) (4)破壞된敎會堂의修理와毁損된備品을償還할것 (5)禮拜의自由를保障할것 (6)聖殿을汚瀆한 將校 敎會에醉酒帶劍하고登壇한일과 博川嶺美敎會에禮拜中에蘇軍이侵入한事 以上犯行한責任者를處罰할것 (7)全鮮各敎會의一週間特別祈禱會를開催하기로함

北쪽가는書信 十一萬
卄九日交換地로第二回發送

제二회三八이북 우편물교환을 금二十九일정오 개성우편국에서 교환하게되여서 二十九일오전七시 자동차로서울중앙우편국을 출발하얏는데 행낭(行囊)수가 十七개로 보통우편五천八백七十三통 엽서四만七천六백五十三통 서류(書留)一천五백九十五통 도합十一만五천九백四十八통으로 남조선체신국대표로는 통신과 보조관 미군장교파이철대위(大尉)와김유선(金裕善)씨가간는데 제三차교환일은 현지에서 결정을 보리라고한다

三八以北에本籍가진 在日同胞에歸國停止

【東京卄五日發合同】연합군총사령부 섭외국(涉外局)二十五일발표에의하면 총사령부는 일본정부에대하야 북위三八이북에원주소를가진 재일본조선인의귀국을중지시키라고 명령하엿다

휴지통

어업八삭만에 세상이 이러케도변햇든가 ▲어려운 三八선의 고비를넘어온편지 봉에가로되「남조선」운운하엿더니 ▲또한신문지상에는 「미소」대표가「북조선」수도평양을 방문할것이라하엿것다 ▲三八선은 누가만드럿고 「카이로」선언은 무어라거릇고 햇더냐 「포쓰담」선언은 무어라약속햇더냐 ▲三八선은 완연한국경 서울 평양은 제각기 수도이거늘 ▲三천만겨레여 이심상치안흔 사태를 똑바루보자!

隱匿米에懸賞制
搜索에美軍隊도使用

러ー취 군정장관은 미곡수집의 비상조치로서 二十七일 다음과갈이 발표하엿다 각도지사는 당국에 불법소유미곡을압수하는데 유리한보고를 하는자에게는 정미 또는 정조(正租)한가마(표준중량)에대하야 三十원을 상금으로주기로되엇는데 미군인과 군정직원은 이 상금을 바들자격이 없다 그러나 각도지사는 미곡소재를발견하는데 미군부대를 사용하기로 되엇스며 농가의 一九四六년도 생산량을조사하기위하야 각군과 면으로 도조사직원이 파견될것이며 농가에대하야서 수확처분에대하야 조사하기로되엿다 그리하야 만흔수량의 미곡을가지고잇는 개인을 발견할때는 미곡을 압수할것은물론이고 법에비추어 최고의 형벌에처할것이다

市에서하루二千名收容
戰災民救濟本部開設

일본과중국방면으로부터귀국하는 전재동포들을집단수용하기위하야 서울시에서는 二十六일시내장충단에 있는 전일본육군병영자리에 전재민구제련합회본부(戰災民救濟聯合會本部)를설치하고 귀환하는전재동포의수용을개시하엿다 오늘까지서울에모혀온전재민은 시내十五개소외 수용소에 분리수용되여있는데 이번설치된구제련합회본부외수용소에 매일약二천명을수용할준비가되여있으며 전재민은 이수용에서약五일동안수용되엿다가 각각고향으로도라가기로되엿으나 그러나서울을떠날수없는외지전재민에게는 당국과도방국이주력적업을알선하고 또시후생과에서는서울부근에잇는황무지를개간하야 농업종사를희망하는전재민농업산에협력수히기로하엿다

錄音한濟州島民謠
踏査한調査團이公開

화무국교화과장(敎化課長) 내비크중위의二十五일발표에의하면 학술조사단 송석하(宋錫夏)씨일행은 제주도에서도라왓는데 「고고학」자료와진품을 만여휴집하얏다한다 동조사단은무주일동안제주도를답사(踏査)하며 고고학자료를모고그섬지리와풍속을촬영도하고또도민요와노래도녹음하여가지고왓는데 「라듸오」등으로공개하고잇다

府尹、雜貨商人等十數名
謀利? 大田檢事局에서收監取調

【大田支局特電】대전지방법원검사국에서는 二十五일 대전부윤(大田府尹) 방두환(方斗煥)과 대전잡화상조합장 이보연(李輔衍)외十여명을 대전형무소에 수감하고 종검사국 양(楊)차석검사담임으로 방금취조중인데 사건은 모리관계인듯하다한다

孤兒에積善
金明元氏의美擧

서내종로정 대원(大元)고무공업소장 김명원(金明元)씨는 인생애로에서 우는 고아를 수용한 향린원(香隣園)에 무료로고무신二백十족을기부하엿다

運動競技
拳鬪普及會發足

聯合軍과같이 그리운 故國에도라온 우리拳鬪界의 巨星沈相旭氏를 中心으로하야 이번에 朝鮮拳鬪普及會가 發足하얏는데同會는拳鬪競技를大衆化하는同時에拳鬪를通하야 堅固한鬪志를 培養하야 祖國光復에크게 이바지하기로되엿는데그의 成果는자못期待된다 그런데同會는 서울에만 局限한것이안이라 全國的 地方組織을하야 興行化하기쉬운 拳鬪를眞正한運動으로서 引導啓蒙하게되엿다 그런데同會幹部는 會長에 文躍 承總務에 沈相旭 蔡熙允 經理에 李文熙의諸氏이다 그리고同會에서는 『新朝鮮拳鬪』도 出版하기로되엿다

春期拳鬪對抗戰

서울拳鬪俱樂部主催로 오는三十一日 午後二時부터 서울運動場에서 서울對高麗兩拳鬪俱樂部에서는 春期對抗戰을 展開하기로되엿는데 兩軍은 目下猛演習中이라한다

鉋台打替 打刃物一式 鉋와끌研 理髮機械研 料理庖丁研 가위研 各種工具物 大工道具販賣

開業案內 特典(此廣告持參者優待) 刃物水研專門(斯界十五年間專業)

松 金鴻水研工場 主 金鴻來 漢城市禮智町一〇六 電話東局②一七六二番(取次)

土月會 再建第一回公演 義士尹奉吉先生의宣誓文「나는赤誠으로써祖國의獨立과自由를回復하기爲하야韓人愛國團의一員이되야中國을侵略하는敵의將校를屠殺하기로盟誓하나이다」 大韓民國十四年四月二十六日 宣誓人 尹奉吉 (屠倭實記尹奉吉義士篇) 아—나、우리들의피를 三幕 大場 (上海虹口公園爆彈事件) 今週의限하야中等學生以下도觀覽하여도조흠니다 團體觀覽은特히取扱함。希望團體는申込하여주시기伏望함 25日부터 首都劇場 土月會出身總出演

移轉廣告 今般當司는黃金町三丁目에서盛業中이던바永樂町一丁目天主教會堂正門前으로移轉하엿사오니江湖諸賢은倍前의愛護와指導鞭撻을仰望하나이다 各種高級化粧品、都散賣 漢城市永樂町一丁目一〇五番地 東和商司 主 孫洙錫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官報(法令第一號부터加除式)發賣 申込所 서울市南大門通二丁目(朝日新聞跡) 朝鮮行政出版社 電話本局一五三一、六五六〇番

讓渡 市內一流紙器製造工場 機械設備完全 資料大量 目下操業中 關係로讓渡하오니 希望하시는分은左로連絡하시압 電話龍山㊃一九二九番 秋

各種染色。旗幟。 廉價技術親切本位로 서울市黃金町四丁目二〇五(電車交叉點角) 三共洋行 電本②五二二五三

醋酸鉛 多量入荷 都賣함 漢城市太平通二丁目三五五 漢城工商會 電話本局三八八九番

讓渡 製粉所를讓渡하오니 希望者는左記에來問하시오 서울市下往十里町八五 前順興精米所後側 高麗製粉所

求 帽子油 男女職工 漢城市西大門 東寶化粧品本舖 電光化門三四〇〇番

賣家 延白郡四十間某溫泉에는旅館業好適 來問 市元町四丁目五 李國仁

朴鍾文 齒科 서울市南大門通三丁目八五(金千代會館三層) 電話②三三六八番

21日부터特別公開 고론부리앗合社製作 梅園에殺人事件 最新入荷 美國映畵 구라이브부룩·진박구主演 貴族에身分으로賭博과放蕩生活끗에殺人事件 寶石과薔薇꼿따발속에숨은犯人은누구인가 運命속에死體를싸고도는慘劇 同時上映 廣島에떠진原子爆彈 ·미소리艦上에서日本無條件降伏 ·美軍進駐狀況뉴ー쓰 第一劇場